

삼성전자, 싱가포르 디지털TV 시장 장악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 시장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업계 최초로 디지털 일체형 TV인 초고화질(풀HD) iDTV(Integrated Digital TV)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한 발 앞선 디지털TV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싱가포르 TV 시장에서 전체 TV 시장은 물론 LCD T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유럽형 디지털TV 기술인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송을 시범 서비스 중이며, 연내에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삼성전자의 iDTV는 H.264 디코더와 DVB-T 튜너를 내장해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싱가포르의 디지털 방송을 고화질로 수신할 수 있

는 유일한 일체형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iDTV외에는 싱가포르 디지털 방송에 적용된 새로운 동영상 압축기술(H.264)에 대응한 일체형 제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 셋톱박스를 따로 구입해야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말 초고화질(풀HD)의 iDTV 3종(40, 46, 52인치)을 출시한 이후 싱가포르 중심가인 캐언힐(Cairnhill) 등에 대형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iDTV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 중동 최고 가전 브랜드로 선정

LG전자가 중동 지역 최고 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중동 지역 최고의 마케팅 전문지 'Communicate'誌는 6월호에서 아랍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전 브랜드는 LG라고 발표했다.

이 잡지는 휴대폰, 가전, 스포츠용품, 의류, 화장품 등 품목에 구분없이 전 세계 모든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아랍 9개국 24세 미만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20개를 선정했다.

이 조사에서 LG전자는 프라다, 나이키, 노키

아, 푸마, 아르마니, 구찌 등과 Top 20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20개 브랜드 중 가전 업체로는 LG전자가 유일해 중동 지역 최고 가전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각각 런칭한 초콜릿폰, 샤인폰이 아랍 젊은이들에게 크게 어필해, LG 휴대폰의 이미지는 "Sexy Phone"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등 9개 국가에서 진행됐다.

LG전자는 아랍의 2대 문화인 스포츠와 음악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브랜드 선호도 제고와 매출 확대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LG전자는 LG컵 축구대회, LG 평화의 축구대회(LG Peace Tour), 이라크 축구대표팀 후원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평화의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모니터, 글로벌 히트 모델 스완 4종 출시	2007/07/05
2	삼성컬러레이저복합기 레이 2번째 CF 런칭	2007/07/04
3	삼성레이저복합기, 올해의 최우수 제품 선정	2007/07/03
4	삼성전자, 하우젠 에어컨 CF 열대야 편 선보여	2007/07/02
5	삼성전자, 싱가포르 디지털TV 시장 장악	2007/06/28
6	삼성전자, 멀티모드 모바일TV 수신칩 개발	2007/06/27
7	삼성전자, 1.8인치 64GB SSD 본격 양산	2007/06/25
8	삼성전자, 브라질 전역에 삼성 브랜드 펄럭	2007/06/25
9	삼성전자, 중동유럽 6개국서 삼성러닝페스티벌 개최	2007/06/21
10	삼성전자, 슬림 HSDPA 스마트폰 최초공개	2007/06/20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대만 PC 1위 관타 제소	2007/07/05
2	LG전자, 세계 최초 UCC 서비스 휴대폰 선보인다	2007/07/04
3	LG전자, 중동 최고 가전 브랜드로 선정	2007/07/03
4	LG전자, 8면취 PDP생산라인 가동 개시	2007/07/02
5	LG전자, 일본 3세대(3G) 휴대폰시장 공략	2007/06/29
6	LG전자, SEK서 첨단 IT기술력 선보여	2007/06/21
7	LG전자, 구글 서비스 지원 영상통화폰 첫 선	2007/06/20
8	LG전자, 아시아에 프리미엄 휴대폰 이미지 심는다.	2007/06/19
9	LG전자 평판TV, 두바이 공공장소 장악	2007/06/19
10	LG전자 샤인폰, 누적판매 200만대 돌파	2007/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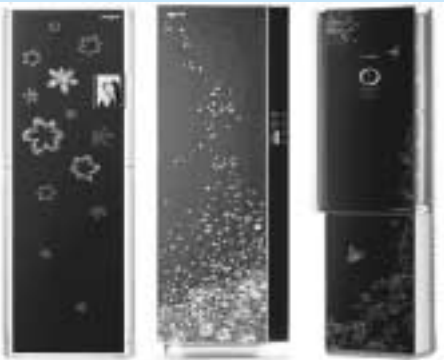
대우일렉 클라쎬 듀얼쿨러 에어컨 큰 호응

대우일렉 트로닉스가 2007년 여름을 겨냥해 선보인 클라쎬 듀얼쿨러 에어컨(모델명 KP-153SR)은 한 대의 에어컨에 2개의 냉각 시스템을 탑재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냉방을 구현한다는 마케팅 포인트를 부각시켜 호응을 얻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듀얼쿨러'는 에어컨 상단과 하단에 각각 독립된 2개의 냉각팬과 열교환기를 통해 위아래 동시냉방이 가능한 신개념 냉방 시스템이다.

기존 제품의 경우 에어컨 상단만을 통해 냉기를 내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시원함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반면 듀얼쿨러 에어컨은 위 아래에 각각 2개의 토출구에서 냉기를 내보냄으로써 실내의 상하단 온도 편차를 개선, 보다 빠르고 시원한 냉방을 구현했다.

특히 강력한 상하 동시 냉방은 원하는 실내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에어컨 가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상하 동시 냉방과 함께 냉기의 방향이 제품 전면 또는 측면에 한정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 전면과 측면을 동시에 냉방할 수 있는 것도 '듀얼쿨러' 만의 특징이다.

또한 독립 냉방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다양한 냉방 코스를

제공한다.

한편, 대우일렉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지난해 양문형 냉장고부터 이어온 '아르페지오 스타일'을 완성했다. 클라쎬 에어컨 신제품에는 고구려의 연화 문양과 흠날리는 꽃잎을 형상화한 브리사 문양을 적용해 절제미가 돋보인다.

필립스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키울 것-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필립스전자로부터 분사한 반도체 기업인 엔엑스피반도체 신박제 회장은 엔엑스피를 한국에서 필립스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초 엔엑스피가 미국 실리콘 래버러토리를 인수하면서 CMOS 고주파(RF)칩 부문을 강화하게 됐다"며 "기존 엔엑스피의 베이스밴드칩에 실리콘래버러토리의 CMOS RF칩 기능을 통합한 원칩 솔루션을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엔엑스피가 기존 강세를 보이고 있는 EDGE·GPRS 등 2세대급 휴대전화 칩셋에 이어, HSDPA·HSUPA 등 3세대급 칩셋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한국시장에 대해 "한국은 시장이 크지만 일반소비자전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해외기업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며 "중국·인도 등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 반면,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는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 한국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기기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 제품들을 최우선으로 개발·공급해야 하는 신제품 격전장"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LG엔시스, 3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특히, 한국서비스대상은 단순히 고객만족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서부터 전략, 시스템, 인적자원, 고객만족, 경영성과 등을 모두 평가하는 이른바 전반적인 서비스기업 평가 모델을 적용해 선정된다.

LG엔시스는 지난 2003년 산업자원부 주관 한국 A/S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2004년에는 서비스사업 부문장이 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유공자로 선정돼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최근 3년간 한국서비스대상을 연속 수상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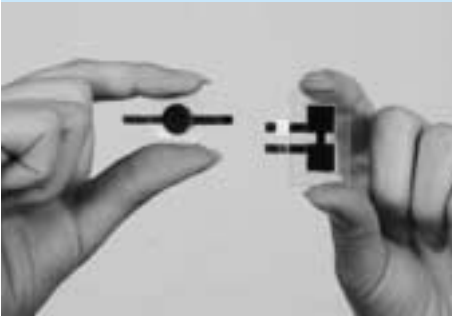
특히, LG엔시스는 지난해 12월, IT 업계 최초로 서비스 전문 브랜드 '소프라(Sopra)'를 선보이고 IT통합운영관리서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케트전기, 전자태그·의약품 초박형 페이퍼 전지 개발

1차전지 전문업체인 로케트전기는 지난 5월 8일 RFID(전자태그), 미용 및 의약품 등으로 쓸 수 있는 초박형 페이퍼전지 개발을 마치고 출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1차전지 개념에서 크게 탈피한 페이퍼전지로 무게 0.15g, 직경 20mm, 두께 0.5mm의 원형이며 전기용량은 2.0mAh의 대용량·고출력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전지는 포장재로 금속캔을 사용한 반면 이 전지는 고분자시트를 사용해 전지 형상을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고 전자 자체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미용, 의약, RFID(전자태그) 전 원용 등으로 다양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로케트전기는 이번에 개발된 페이퍼전지의 전극구성 및 제조방법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과 제품 양산을 위한 자본증자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회사는 미용 및 의료분야 특히 약물 전달시스템분야에서 초기 연간 10억원 이상, 매년 200% 이상의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P사만이 유사한 전지를 개발 완료하고, 일부 미용 및 의약품사와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스텍, 무가-총기 검색 시스템 파키스탄 수출

다스텍이 신규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무가-총기 검색시스템 부문에서 첫 수출의 결실을 맺었다.

다스텍은 주력 제품인 '무가-총기 검색대'의 글로벌 마케팅을 벌여 온 다스텍은 첫 수출지로 파키스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스텍은 총기 소지와 관련해 자유로운 미국과 중동, 서남아시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의 마케팅 활동을 해 오던 상황에서 파키스탄 소재의 '크로스월드 솔루션'사와 수주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출 판로개척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파키스탄 소재의 '크로스월드 솔루션'사는 파키스탄의 군부 출신의 인맥을 갖춘 회사로서 50대의 '무가-총기 검색대'를 공급받게 되며

다스텍은 이번 공급을 계기로 향후 공급 수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온미디어, 세계최초 모바일 PVR 다기능 단말기 상용화

가온미디어는 세계 최초로 기존 PVR 셋톱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기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신개념 다기능 내비게이션을 개발, 본격적으로 모바일 사업에 진출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가온미디어는 금번 모바일 제품 출시를 통해 올해에만 200억원 규모의 신규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PVR 단말기의 가장 큰 특징은 네비게이션, 지상파 DMB, PMP 시청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PVR 셋톱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USB 케이블 등을 이용해 모바일 단말기로 전송하게 되면 소비자는 기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또한 기존 A/V 기기에서 출력되는 동영상을 모바일 PVR에서 녹화가 가능해 콘텐츠 확장 및 수용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가온미디어의 모바일 PVR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현재 국내시장보다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 콘텐츠 확보가 어렵고 디지털 셋톱박스의 보급율이 높은 유럽 및 미주 시장에서의 모바일 PVR에 대한 판매 및 수주확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온미디어는 해외 방송사업자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를 더욱 확대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해외 매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덱트론 첨단 나노리튬 2차전지 개발

2차전지 및 액정표시장치(LCD) TV 전문기업 덱트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나노

리튬 이온 2차전지의 개발에 성공했다.

덱트론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나노역사에서 지원 받은 나노기술을 이용해 고출력·고밀도의 차세대 나노리튬 2차전지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표준규격인 '18650 (직경18mm, 높이 65mm의 범용전지)'에 맞춰 원통형으로 개발된 이번 프로토타입은 당초 목표치인 셀당1400mAh의 성능을 훨씬 웃돈다는 평가다. 이로써 덱트론은 시장 진입 10개월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개발에 사용된 나노리튬 소재는 이미 미국의 아르곤연구소의 실험에서 뛰어난 에너지 및 출력·안정성을 보였지만 상용 셀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였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LS전선, 부품사업에 향후 5년간 5000억원 투자

LS전선이 부품·소재 사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2개 기업을 추가로 인수한다.

또 부품·소재사업에만 오는 2012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한다.

심재설 LS전선 부품사업본부장(부사장)은 7월 1일 "현재 2개 부품기업에 대해 인수를 추진 중이고 연내에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S전선은 부품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도 카보닉스·코스페이스 등을 인수한 바 있다.

심 부사장은 이어 "LS전선은 회로소재 사업과 전자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 2012년에 부품사업본부 매출을 지난해의 5배 규모인 1조2000억원으로 키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는 LS전선이 그동안 해마다 집행해온 전사 투자규모

와 맞먹어 부품·소재사업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LS전선은 전지와 PCB의 주요 소재인 동박과 연성동박층필름(FCCL)·음극재로 구성된 회로소재 사업에 오는 201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 현재 600억 수준의 매출을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동박 소재 부문에서는 세계 톱 2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몰렉스, 종합 커넥터 생산업체로 우수성 알려

커넥터 전문업체인 한국몰렉스가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커넥터는 통신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 홈네트워크 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한국몰렉스는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 PDA, MP3플레이어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0.4mm 기판 대 기판용 커넥터, 다양한 카드 소켓과 최소형 FPC 커넥터 등은 높은 신뢰성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앞서 한국몰렉스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코리아 IT 쇼'에 커넥터 공급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국고덴시 대표이사, 한국무역학회주관 무역진흥상 수상

1980년 전자 및 반도체의 불모지인 전북에 한국고덴시(주)를 설립, 지난 27년 동안 평균 25%에 가까운 고도 성장과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회사 및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나카지마 히로카즈 회장은 적극적인 R&D 강화정책과 첨단 광반도체 소자 개발로 막대한 수입 대체효과 및 유사부품의 국내 수입가격 인하로 외화낭비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광(光)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회사'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위해 광센서와 광반도체를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도록 하여 도내 뿐 아니라 국내 고도 정보화 사회 실현에 이바지했으며, 수출증대 노력으로 2004년에 이미 1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2010년 2억불 수출을 목표로 '수출 전복'을 위해 뛰고 있는 나카지마 히로카즈 대표이사는 "반도체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오토닉스

업계 최초 센서·제어기기 상설 종합 전시관 오픈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주)오토닉스가 6월 2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천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동사 서울사무소내에 업계 최초로 상설 종합 전시관을 오픈했다.

(주)오토닉스는 자동화 산업에 필수적인 센서, 제어기기 등이 외산 일색이던 1970년대, 국내 최초 디지털 카운터인 K시리즈 개발을 필두로 근접/포토 센서 개발, 국내 최초의 광화이버 센서 개발, 국내 최초의 5상 스테핑 모터 개발 등, 산업 현장의 필수 기기인 센서·제어기기 분야에서 수많은 제품의 국내 최초 국산화를 이루고 더불어 수많은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왔으며, 그간 철담 산업 훈장 수훈 및 업계 최초의 천만불 수출탑 수상을 비롯하여 정부와 기관, 단체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 받아왔다.

이번에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천 테크노파크 소재 오토닉스 영업부내에 개관하게 된 상설 전시관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센서, 제어기기 업계 최초로 개관하는 상설 종합 전시관으로서, 약 45평 규모에 제품 zone, 기업소개 zone, 역사 zone, 네트워크 zone, 신제품 zone, 종합 데모키트 zone, 코닉스 zon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품zone에서는 (주)오토닉스의 센서, 제어기기, 스테핑모터 및 레이저시스템 제품과 가동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어계측기 전문회사인 (주)코닉스의 제품 zone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업소개zone에는 업계와 기업에 관한 각종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역사zone에서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카운터 K시리즈를 비롯한 국내 산업자동화의 초장기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성장한 (주)오토닉스의 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네트워크zone에는 디바이스넷을 이용한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신제품 zone에서는 2상 스테핑모터 AK-2시리즈를 비롯한 (주)오토닉스의 신제품을 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종합 데모 키트 zone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하나로 연계하여 각 제품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다.